

‘달토기빵’ 2탄 레시피 공모전

오는 8월 16일(금)까지 신청자 접수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오는 8월 16일(금)까지 달서구 선사시대로 토기빵, 달토기빵의 새로운 레시피 발굴을 위해 달토기빵 2탄 공모전에 참가할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달토기빵은 2021년 달서구 대표 관광자원인 2만년 선사시대를 모티브로 달서구청과 (사)대한제과협회 달서구지부가 함께 개발했다.

현재 18개소 지정 판매업소에서 판매 중으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주제는 ‘달서구 선사시대로 토기빵 2탄 개발’이다. 공모 자격은 지역,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달서맛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달서맛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달서구청 위생과(☎053-

667-2781)로 하면 된다.

공모전은 총 19개의 수상작을 선정해 대상(1명)은 100만 원, 최우수(1명)은 50만 원, 우수(2명)은 30만 원, 장려(3명)은 10만 원, 입선작(12명)은 5만 원 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선정된 작품은 달서구를 대표하는 달토기빵 2탄으로 출시되어 달토기빵 지정 판매업소에서 판매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달토기빵 2탄 레시피 공모전을 통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고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달서구 대표 먹거리 콘텐츠를 발굴·육성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청〉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달성소방서 합동소방훈련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정화)에서는 지난 1일(월) 달성군민체육관에서 화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달성소방서와 함께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자료제공:달성군시설관리공단>



달성군청소년센터, 청소년어울림마당 ‘우리가족, 한여름밤의 꿈’

달성군청소년센터(관장 신성진)는 지난 6일(토) 관내 청소년과 가족 152명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되어 참여하는 ‘우리가족, 한여름밤의 꿈’을 운영했다.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원조 동대문곱창 대구 본점

달서구 감삼길 154(감삼동 209-7) / 문의 ☎053-556-5107

젊은 사장님의 섬세한 서비스! 감삼동 철판 야채 곱창

예전 식신로드 프로그램에 방영됐던 유명한 집 ‘동대문 곱창’은 감삼역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감삼초등학교 근처에 자리 잡고 있다.

지나가다 보면 대기 줄이 항상 길어 “어떤 곳일까?” 궁금했는데 운 좋게 들어가 보았다.

요즘 트렌트인 깔끔한 감성 맛집 보다는 로컬 맛집이나 노포 맛집 느낌이, 젊은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다.

내부는 테이블 5개 있는 아담한 매장으로 사장님이 입구쪽에서 큰 철판에 음식을 만드는 모습이 바로 보였다.



메뉴에는 ‘알 곱창(곱창, 야채) 1만 1,000원, 야채 곱창(곱창, 야채, 당면) 1만 1,000원, 순대곱창(곱창, 야채, 당면, 순대) 1만 2,000원, 통마늘 곱창(곱창, 야채, 마늘) 1만 2,000원, 볶음밥 4,000원’이 있다.

곱창에 당면, 순대, 소시지, 야채 등 사리를 추가할 수 있고, 1인분씩 섞어 주문할 수도 있다.

주류는 셀프로 가져다 먹고 마지막에 정산하면 된다.

메뉴 주문과 동시에 오픈형인 주

방에서 사장님이 굽는 걸 구경하다 보면 불향 가득한 곱창을 가져줘 편하게 식사 할 수 있다.

매운 소스와 특제소스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으며, 기본으로 당면 사리가 들어가 있어 곱창과 당면이 어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맛있다. 당면 좋아한다면 사리 추가하는 걸 추천해 드린다.

오동통한 곱창은 냄새 없이 아주 부드러웠고 잘 볶여진 야채와 같이 불향 가득하게 즐길 수 있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K-후식인 볶음밥을 주문했다. 가게 된다면 볶음밥은 꼭 먹어보길... 야채, 김치, 김 가루 등이 들어간 볶음밥으로 양도 푸짐하고 고슬고슬하게 볶아 너무 맛있다.

포장마차 가고 싶을 때, 곱창 먹고 싶을 때, 간단히 술 한잔하고 싶을 때 추천해 드리는 곳이다.

※영업시간: 16:00-23:00(매주 일요일 휴무)
신세란 객원기자